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5년 6월 15일(일) 제1544호

평강의 복 예수 그리스도!

2025 마리아행전 '평강의 복' 3,272명 참석 ...“평강의 복 누리고, 세상에 흘려보낼 것 다짐”

나라와 민족, 가정과 교회, 다음세대의 평강을 구하는 마리아들의 부르짖음은 결국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했다. 2025 마리아행전 '평강의 복'이 준 교훈은 바로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였다.

지난 6월 11일(수)부터 13일(금)까지 양재 온누리교회와 각 캠퍼스에서 막 올랐다. 순백의 마리아 3,272명이 참가했다.

집회 첫날, 송정미 사모 특순, 조호영 목사 환영 인사 및 오프닝 메시지, 이훈 목사(길벗 다문화센터) 설교, 합심기도회 등이 이어졌다. 이훈 목사는 '평강에서 평강으로' (사 26:3)를 주제로 메시지를 전했다. 이 목사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평강의 복을 누리면서 그 복을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나타내야 한다”면서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마음 깊이 새기고, 그 마음으로 살고, 평강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합심기도회는 김정희 목사가 인도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 부모세대의 죄에 대한 회개기도를 했다.

집회 둘째 날, 정갑신 목사(예수향남교회) 메시지, 합심기도회 등을 했다. 정갑신 목사가 '평강의 길, 짐과 짐'을 주제로 설교했다. 정 목사는 “우리가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약속보다 내 감정과 판단을 더 신뢰하기 때문”이라며 “참된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합심기도회는 이윤재



2025 마리아행전 '평강의 복'.

목사, 배순양 목사, 김현실 목사가 인도했다. 한국 교회, 세계 교회, 정치 지도자, 대한민국, 청년과 교회학교, 다음세대, 기독교학재단 등을 위해 부르짖었다.

집회 셋째 날, 온누리교회 모든 마리아가 양재온누리교회 사랑홀에 모였다. 이재훈 위임 목사 메시지, 합심기도회, 세례모니 등이 이어졌다. 이재훈 위임목사는 '고요하고 평온하게'를 주제로 메시지를 전했다. 이 목사는 “평강

을 잃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은 교만”이라며 “의의 말씀으로 연단된 분별력을 가지고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합심기도회는 권오향 목사, 김미정 목사가 인도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하는 기도, 예수님 다시오심을 선포하는 기도, 북한을 위한 선포 기도, 전쟁으로 평강이 깨진 열방을 위해 기도했다.

고우진 권사(안양평촌공동체)는 “두려움과

불안이 큰 이 시대에 성도는 평강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면서 “가족, 순식구들, 지인들에게 평강의 메시지를 전하며 살겠다”고 다짐했다.

서연주 성도(강남A공동체)는 “누군가에게 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기보다 마음을 붙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며 “마리아행전에서 받은 은혜를 기도로 삶에서 실천해 나가겠다”고 고백했다. / 홍하영, 박지혜 기자

FA 24기 청년 선교사 모집

7월 6일까지 서류 접수

FA(Frontier Agency movement) 24기 청년 선교사를 모집한다. 7월 6일(일)까지 서류 접수를 마감한다. 7월 19일(토)과 26일(토) 면접을 진행하고, 최종 청년 선교사를 선발한다. 8월 12일부터 9월 5일까지 4주 동안 국내 합숙훈련을 하고, 9월 23일부터 2026년 2월 3일까지 18주 동안 현장사역을 한다. FA 24기 파송 국가는 네팔, 일본, 인도네시아다.

FA 24기 지원 자격은 온누리교회 등록 성도(1년 이상)이자 대학청년부 공동체 소속(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35세 이하 미혼(89년생 8월 이후 출생), 세례 교인이어야 하고,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FA 24기 참가신청은 'FA 24기 선교사 신청서' (하단 QR 참고)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제출을 한다음에는 신청서 하단에 있는 구비서류를 다운받아 작성하고, 이메일(fa@timor.kr)로 보내면 된다.

문의: 070-4464-8105



/ 홍하영 기자

법조인맞춤전도집회 'Justice For You'

6월 16일 오후 6시 45분 서빙고 본당

법조인맞춤전도집회 'Justice For You' (부제: 법과 정의, 그 너머의 삶)가 드디어 막 오른다. 6월 16일(월) 오후 6시 45분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진행된다.

법조인맞춤전도집회 'Justice For You'에서는 식사와 공연, 토크쇼, 이재훈 위임 목사 메시지, 편지 읽기, 결신, 축복의 시간 등의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손범수, 진양혜 아나운서가 사회를 보고, 가수 선예, 소프라노 강혜정, 가스펠 보컬 밴드 크룩스 등이 게스트로 출연한다. 토크쇼는 '법조인으로 산다는 것'을 주제로 진행된다. 손범수, 진양혜 아나운서 사회, 윤세리, 이은경, 최태형, 조혜은 변호사가 패널로 참여한다.

법조인맞춤전도집회 참가자들은 행사 당일 오후 5시 30분부터 서빙고온누리교회 로비에 등록 확인을 하고, 6시 10분부터 본당에 입장할 수 있다. 6시 45분부터 식사가 시작되고, 집회는 7시 30분 시작된다. 접수 확인 및 문의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저스티스포유' 채팅창에서 할 수 있다.

CGN, '사랑으로 함께' 캠페인 종료...성도 1,045명 참여

선교 미디어 CGN이 최악의 산불로 삶과 신앙의 터전을 잃은 경상도 지역 이재민과 교회들의 아픔을 나누고 위로하기 위해 지난 4월 4일부터 5월 30일까지 실시한 '사랑으로 함께' 캠페인이 종료됐다. 성도 1,045명이 참여해

2억7천1백여 만 원을 모금했다. 모금액 전액 산불 피해 이재민과 교회를 돕는 데 사용한다. '사랑으로 함께' 모금 사용 내역은 추후 CGN 공식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이다.

문의: 02-796-2243

2025 차세대 여름캠프 시작

7월 5일~8월 10일
국내 캠퍼스 및 외부

2025 차세대 여름캠프가 시작된다. 예수님의 꿈아이(영아부, 유아부, 유치부)와 꿈이자라는땅(유년부, 초등부, 소년부)은 '하나님의 꿈을 입은 요셉'을 주제로 7월 5일부터 8월 10일까지 온누리교회 각 캠퍼스 본당 및 외부에서 진행된다. '꿈을 주신 하나님', '함께하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등 과별 주제로 성경 퀴즈, 적용 놀이, 체험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한다.

파워웨이브(중고등부)는 7월 25일부터 8월 10일까지 외부에서 캠프를 한다. 'His Plan'을 주제로 찬양집회, 강의, 기도회 등을 개최한다.

한편, 지난 5월 31일(토)부터 이어진 차세대 어드벤처(Adventure) 교사강습회가 6월 15일(일) 막을 내린다. 교사, 목회자를 대상으로 기도회, 주제강의, 찬양강습, 교재강습 등을 했다.

문의: 02-3215-3521

Come, Lord Jesus!
Revelation 22:20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일강단



이재훈 위임목사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마지막 날 우리가 만날 주님의 모습을 두 가지 이미지로 표현했습니다. 첫째, ‘신랑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어린양의 결혼잔치에 신랑으로 나타나신 주님을 우리는 신부로서 만나야 합니다. 신부의 책임은 거룩하고 정결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신랑을 기쁨으로 맞이하도록 순결한 옷을 입고, 의로운 행실로 자신을 단장해야 합니다. 둘째, 싸우는 전사로서 승리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악과 싸우는 전사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흰말을 타고 오시는 분으로 묘사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장군이 승리하면 흰말을 타고 나타났기에 ‘흰말을 타고 오시는 분’은 전쟁에서 승리하신 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신랑과 전쟁에서 싸우는 전사는 전혀 다른 성격입니다. 이는 서로 모순되는 게 아니라 보완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두 가지 측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신랑과의 친밀한 연합 그리고 기쁨과 축복의 자유 측면이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과 싸워야 하는 전쟁에서의 승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신랑을 신부가 만나는 친밀함의 기쁨과 악과 싸워 승리하는 전쟁에서의 승리가 곧 구원입니다.

흰말을 타신 그리스도의 승리

〈요한계시록〉 19장 후반부에 흰말을 타신 그리스도의 세 가지 이름이 나타납니다. 첫째, ‘충성과 진실’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셋째, ‘왕의 왕, 주의 주’입니다. 모든 용의 세력, 사단의 세력을 집결시킴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려 하나 마지막 전쟁에서 흰말을 타신 그리스도의 예리한 칼과 쇠지팡이로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십니다. 여러 번 전쟁이 반복되고, 16장에 나오는 마지막 심판이 19장과 20장에서 반복되며, 점진적으로 구체화되는 표현 방법을 주목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이를 ‘점진적 반복’이라고 합니다.

앞서 주어진 내용을 요약하고, 또 다시 설명하는 방법으로 각도를 조금씩 달리하면서 동일한 사건을 여러 각도에서 바라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연대순으로 여러 사건을 맞춰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여러 경고성 심판이 있지만 마지막 심판에 이르기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백성들에게는 곧 구원의 날, 새 하늘과 새 땅이 예비되어 있다는 진리의 말씀을 여러 이미지와 환상, 표현들을 통해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요한계시록〉 20장은 마지막 심판과 사단의 싸움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게 해줍니다. 특히 역사적으로 논란이 많았던 ‘천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20장을 네 부분으로 나눠 살펴보면, 20장 1~3절에서는 한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사슬로 사단 마귀 곧 옛 뱀을 천년 동안 묶어놓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고 나서 잠시 풀려나는데 4~6절에서는 순교자들이 다시 살아나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한다고 말씀합니다. 7~10절에서는 천년이 다 차면 사단이 결박에서 풀려나 전쟁을 위해 세력을 집결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나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불타는 유황못으로 던지심으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11~15절에서는 회고 큰 보좌 앞에서 생명책에 근거해 모든 이들을 심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천년을 중심으로 뚜렷하게 구분되는 사건들을 표현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천년을 문자적으로 실제 기간이라고 해석합니다. 두 가지 주장이 있는데 하나는 ‘전천년설’입니다. ‘천년 전에 재림’ 혹은 ‘재림 후에 천년’이라고 정리하면 됩니다. 천년 동안 통치가 이루어지고, 천년 후에 진정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재림을 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천년 왕국의 시간이 지난 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 것입니다. 이 설명을 한국 교회 선배님들도 많이 받아들였고, 서구권의 많은 성도도 이 관점을 받아들였습니다.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거짓말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종말을 가 봐야 아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해석이 어느 하나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더 균형 있는 해석인지를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뿐입니다. 또 하나는 천년이라는 기간이 문자적으로 실제 존재한다고 인정하

면서도 천년의 시점이 재림 후가 아니라 재림 전에 있을 거라는 해석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데, 재림 전에 천년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후천년설’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전 천년의 기간에 매우 중요한 영적 부흥이 일어날 거라고 설명합니다. 영향력이 있었지만, 요즘에는 주장하는 분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천년이라는 숫자가 왜 문자적인 숫자일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칼뱅이나 루터, 초대교회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학자들은 문자적인 천년이 아니라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와 다시 오실 때 기간, 그 세대가 곧 천년이라고 했습니다. 최후의 심판을 이미 〈요한계시록〉 15장에서 말씀했는데도 16장, 19장, 20장에 계속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이 연대순으로 기록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년도 연대적인 순서대로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처음 오심과 다시 오심 사이에 우리가 사는 시대를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이를 ‘무천년설’이라고 하는데, 저는 ‘현천년설’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현재가 곧 천년이라는 것입니다. 20장에 나오는데 천년이라는 기간에 사단이 무저갱에 묶인다는 게 중요합니다. 천년이 문자적이나 상징적이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일정 기간 사단이 묶여있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만국을 현혹하지 못한다

사단을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봉인해 천년 동안 만국을 다시는 현혹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2~3절). 이 말씀 해석의 키는 ‘다시는 만국을 현혹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전체 활동이 결박된 게 아니라 만국을 현혹하는 활동이 결박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만국을 현혹하는 활동을 했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다시 오실 때까지는 사단의 영향력이 매우 축소되는 상대적 결박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간 일부 활동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건드리지 못하는 절대적 결박이 된 것입니다. 천년 동안 결박되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만국을 현혹하는 데 있어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과 다르게 제한됐다는 것이고, 완전히 결박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완전히 건드리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기점으로 사단은 더는 만국을 현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관련해서는 절대적으로 결박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백성들의 구원을 해칠

수 있는 능력이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핍박과 박해를 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서 성도들을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일부 활동을 합니다. 그러나 만국을 현혹할 수는 없습니다. 이 기간이 천년 동안의 결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적인 통치

십자가 승리 이후 주의 재림 사이 천년 동안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6절). 이 기간 동안의 통치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적인 통치’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 왕으로서 세상을 통치한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중보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심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우리가 영향력을 미치는 중보적인 통치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통치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신 다스림의 통치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는 삼중의 과정이 구성됩니다. 20장 1~3절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이 곧 세상에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중간 상태가 있습니다. 이 중간 상태는 하늘의 왕 노릇하는 것입니다(계 20:4-6). 세 번째는 영원히 우리가 낙원에서 왕 노릇하는 것입니다(계 21:1-8, 9, 22:5).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는 권세를 가진 자로 살아야 합니다. 공의로운 심판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우리는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지막 날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이 회개하도록, 그리스도와 함께 중보적인 통치자가 되어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은 심판이 아닙니다. 창조입니다. 20장에서 흰보좌에 앉으신 분이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이지만, 21장에서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악이 승리하는 것 같은 세상은 결코 그 상태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기-성경적 세계관 형성기

답은 성경에 있다!

1980년 대학 입학 직후였다. 평소 질문이 거의 없었던 나였지만, 정말 답답하고 고민이 있어서 교회 선배와 담당 목회자에게 질문했다.

“혼란해진 세상의 한복판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돌아온 대답은 “너는 그런 거 알 필요 없어. 그냥 교회나 열심히 다녀”였다. 나를 무시한 대답은 아니었지만, 실망감이 가슴 깊게 담겼다. 사회의 급작스러운 혼란 속에서 나는 가치 판단 기준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에 심각한 의문을 품었고, 방향을 잃어버렸다. 10년, 20년 후에도 이어가려던 신앙과 삶을 위한 장기계획이 의욕을 잃었고, 부끄럽지 않은 삶의 토대로 삼으려던 전제들이 의미를 상실했다.

세계관이라는 개념조차 없던 20세에 겪은 혼돈을 통해 세계관을 가늠해 본다. 세계관은 가치 판단의 기준, 정체성과 그에 기반한 삶의 방향 설정과 실행에 영향을 준다. 살면서 마주치는 사소한 선택부터 심각한 질문들 모두에 연관된 선택 방식이고, 대답이다. 고등학교 때 회심했고, 창조론을 의심해 본 적이 없으며, 교회 중심의 이타적인 삶에 가치가 있음을 믿었다. 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세상의 가르침이나 가치관과 충돌이 일어날 때 믿음의 본질과 믿음의 선택을 위해 어떤 질문을 누구에게 해야 하는지조차 몰랐다. 성장을 위한 도전과 헌신의 필요성에 대해 무지했다.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고, 예배에 참석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아 평안하게 사는 게 신앙생활의 전부이자 목표였다.

선교학자 폴 허버트는 <21세기 선교와 세계관의 변화>에서 자신이 지닌 세계관을 검토할 것과 선교에서 회심의 세 단계 차원을 말했다. 첫 단계는 ‘행위와 의식의 변화’다. 술, 담배를 끊고 무속, 우상숭배를 중지하며 세례를 받고 교회 출석하는 등 생활 양식의 표면적 변화가 일어난다. 두 번째 단계는 ‘신념과 신념 체계들의 변화’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따르며,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기로 결단하기에 이른다. 세 번째 단계가 ‘세계관의 변화’다. 자신도 모르게 만들어진 기존의 세계관이 성경적 세계관으로 바뀌는 것이다. 회심은 이 단계에 이르러야 한다고 말한다. 나는 두 번째 단계 언저리에 서 있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정립되지 못한 세계관으로 새로운 환경과 가치관의 충돌에 직면할 때 부실한 기초가 여실히 드러났다. 나는 무지한 자의 용기에 힘입어 선택을 위한 마지막 시도를 했다. 성경을 읽기로 한 것이다. 위에서 아래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기록되고, 한자가 섞인 깨알 크기의 활자로 된 관주도 없는 신약 성경을 일주일간 정독했다. 해설서나 안내 줄 사람 없이 골방에서 시도한 첫 성경 정독이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잘 모르겠다. 아니, 전혀 모르겠다. 여기에 진리가 없는 것이 분명해’였다. 선부르고 교만한 결론이었음을 깨닫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고, 대가도 꽤 치러야 했다.

하지만 결국 답은 성경에 있었다. 선불리 성경에 진리가 없다고 내린 결론을 하나님께서

서히 바꾸어 주셨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오랜 기간 지속했다. 어느 순간 말씀이 눈에 쏙 들어오고, 꿀송이처럼 달콤하게 읽히고, 이해된 게 아니다. 성경 전체를 개괄하면서 하나님의 진심, 예수님 말씀의 본래 의미,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마음에 자리하기 시작했다. 꾸준히, 차근차근 탐구하는 시간을 통해 변화의 여정이 이루어졌다. 순간이 아니라 과정이었고, 아직도 진행형이다. 성경 말씀 이해에 도움이 된 신앙 서적들, 무엇보다 믿음의 선배들, 말씀을 가르쳐주는 분들이 있었다. 그분들은 나에게 이해를 강요하지 않았고, 성경이 잔잔히 내 속에 스며들었다. 세계관은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사람을 포함한 주변 환경과 사회 문화적 요인들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한다. 기독교 세계관은 성경적 세계관이다. 성경의 진리를 의심하는 긴 방황을 거쳤지만, 성경과 가까워지면서 성경적 세계관이 내 속에 토대가 쌓이고, 형태를 이루어갔다. 인격적으로 여전히 부족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현실에 관한 질문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 하지만 믿음의 삶에 대한 방향과 방식이 정해지고, 정체성이 분명해지는 것은 무엇보다 큰 변화이고, 축복이다. 성경적 세계관은 역사의 종말에 대한 성경의 예언과 약속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충족한다는 확신을 하게 한다. 이 세상에 가득한 불의를 분별하게 하고, 선부른 판단을 예방하며, 잠시 낙심할지라도 쓰러지지 않도록 힘을 준다.

필립 안시와 폴 브랜드가 함께 쓴 <육체 속

에 감추어진 영성>에서 ‘피’에 관한 의학적 해설과 성경적 해석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혈액 세포들은 몸을 구성하는 1백조 개의 세포들에 필요한 에너지와 산소를 운반하고, 몸의 찌꺼기 배출을 돕는다. 피의 가장 중요한 세포 성분인 적혈구는 수명이 약 4개월이다. 매일 약 3천억 개의 적혈구들이 새로 생성되고 활동한다. 적혈구는 몸에서 만들어지고, 그리스도가 주는 생명은 말씀을 통해 공급된다. 성경 말씀은 생명이고, 영적인 피이다. 기도인 호흡과 생명의 말씀인 피가 쉬지 않고 몸을 순환해야 한다. 신선한 공기와 새 혈액으로 매일 새로워져야 그리스도인은 생명과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다. 감사하게도 온누리교회는 “알 필요 없어요. 그냥 교회나 열심히 다니세요”라고 말하지 않는다. 함께 질문하고, 말씀 속에서 길을 찾도록 “배우든지 가르치든지!”라고 도전하고 격려한다. 온전한 회심을 위한 그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이를 위해 목회자와 동역자와 소그룹과 공동체가 가까운 곳에 있고, 참여할 수 있는 모임들이 날마다 열리고 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되 매일 말씀 가운데 머물며 쉬지 않고, 성장의 여정을 함께 걷는 과정에서 성경적 세계관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지고 자란다.



정원만 장로
(한강공동체)

특별기고

하나님을 찾는가? 아니면 향수를 좇는가?

<가톨릭 뉴스 에이전시>에 따르면, 올해 프랑스에서 부활절에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한다. 이는 작년보다 45% 증가한 수치이다. 역사적으로 회의적이고 세속적인 프랑스 사회를 고려할 때 특히 주목할 만하다. 이 보도는 유럽의 다른 지역에서 들려오는 소식과도 일치한다. 특히 남성들 사이에서 그동안 거부했던 신앙으로의 복귀가 일어나고 있다. 미국에서도 젊은 남성들 사이에서 동방 정교회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나타나고 있다. 일부는 이러한 현상을 대중적 부흥 운동처럼 요란하지는 않지만 ‘조용한 부흥’이라 부른다. 영국의 글렌 스크리브너와 저스틴 브라이얼리, 미국의 개빈 오텔런드는 이러한 조용한 성장을 조심스럽게 기록해 왔다. 그들 모두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부흥인지 아니면 과도하게 반복된 ‘워크(woke)’ 문화에 대한 반작용

으로 문화의 흐름이 이동하고 있는 것인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20년 전에는 크리스토퍼 히친스, 샘 해리스, 리처드 도킨스 등과 함께 신무신론이 유행했었다. 동시에 팀 켈러, 존 파이퍼, 복음 연합(The Gospel Coalition)을 통해 새 칼빈주의가 떠오르기도 했었다. 이 서로 다른 운동들은 9.11테러와 세계적 테러 위협으로 인해 혼란스러워진 세상을 지적으로 구조했다. 이러한 흐름은 1980년 히피 시대, 베트남 전쟁, 워터게이트, ‘나의 시대’라 불렸던 향락적 10년의 여파 속에서 등장한 레이건 혁명과도 비슷하다.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희망을 찾아 신앙, 가족, 자유로 돌아갔다. 새롭게 등장한 종교 우파는 정치의 한 축이 되었다. 그 이전에는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을 견뎌낸 위대한 세대가 냉전과 핵 위협 속에서 장군 출신의 아이젠하워를 대통령으로

로 뽑고, 노스캐롤라이나 출신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이 말하는 구원의 은혜를 듣기 위해 몰려들었다.

인간은 사회적, 문화적 혼란 속에서 잃어버린 것을 되찾으려는 본능을 가진다. 동시에 새로운 위험한 사상에 쉽게 매혹되기도 한다. 지난 10년의 어리석음을 거부하는 것은 환영할 만하지만, 향수에 빠지는 것도 전략이 되지 못한다. 중요한 것은 ‘진리’다. 확실히 많은 이들이 남성은 여성 스포츠나 화장실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조차 비난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지쳤다. 서구 문명 전반이 악하고 억압적이라는 주장에도 질려 있다. 그러나 단순히 잘못된 생각을 거부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진리이고, 선한 생각을 붙들고, 그 위에 무언가를 세워야 한다. 이 분위기 전환이 지속하려면 새로운 문화를 가꿔야 한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다. 씨앗 중 일부는 돌밭에 떨어져 잠깐 생명을 보였지만 뿌리가 없어서 곧 말라 죽었다. 이 비유는 인간과 문명에 대한 진리를 말해준다. 교회는 신앙의 토양을 깊이 파고들어 가야 살아야 한다. 이번 변화의 순간이 한순간 짙어지고 끝나는 일이 되지 않으려면 단순히 잘못된 것을 싸워 없애는 데서 멈추지 말고, 진리이고 선하며 옳은 것을 세워나가야 한다.

그리스도를 향한 새로운 회심은 언제나 환영의 일이다. 지금 찾아온 이 기회는 교회가 더 많이 손을 내밀고 더 많은 이들을 맞이해야 함을 보여준다. 최근까지 우리는 깊이보다 넓이에 집중해왔다. 그러나 지금 사람들이 원하는 것 그리고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더 깊은 뿌리이다.

/ 존 스톤스트리트, 티모시 D. 패짓

원문: breakpoint(20250521)

◆ 6월 11일 수요일

평강에서 평강으로

〈이사야〉 26:3

이훈 목사(길벗다문화센터)

하나님이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마음의 뿌리가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는 한결같은 마음을 뜻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상황과 감정에 따라 흔들리기 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탁받은 것은 다른 이들에게 평화를 전하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평화가 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을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오도록 하는 것이지, 우리에게 없는

것을 주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라고 말합니다. 내가 한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네”라고 대답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성경에는 평강의 복을 누리며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 평강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려면 첫째, 불안을 양식 삼지 말아야 합니다. 불안과 염려가 계속되면 자꾸 애쓰게 됩니다. 그리

고 그 불안을 주변 사람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평화를 훼손하는 것에서 마음의 거리를 뒤야 합니다. 우리의 평화를 뺏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상황과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환대를 받거나 학대받는 그 어떠한 상황에도 전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지닌 채 흔들리지 않고 걸으셨습니다. 상황보다 우리를 흔들여 놓은 게 있습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배신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신실하게 변화시켜 가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평화를 훼손하는 상황과

사람에게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반드시 신실하게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우리가 마음 붙일 수 있는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 붙일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쉼과 평화를 약속하시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 11:29). 우리가 진정으로 평강의 복을 누리고, 그 복을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나타내고자 한다면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마음 깊이 배우고, 그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상황과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불안한 사람들이 와서 머물며 쉼을 얻고, 마음을 붙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 6월 12일 목요일

평강의 길, 집과 쉼

〈마태복음〉 11:28~30

정갑신 목사(예수향남교회)

왜 우리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평강을 누리지 못할까요? 첫째, 예수님이 주신 평강의 약속 위에 살지 않고, 나의 기분, 상황, 감정에 휘둘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이 내 느낌보다 훨씬 정확하고, 내 판단보다 훨씬 똑똑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평강의 약속 위에서 사는 법을 매우 의도적, 지속적, 반복적으로 연습해야 합니다.

둘째, 약속하신 평강의 의미를 잘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강

을 약속하실 때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이 약속하는 평강은 가짜 평안입니다. 내 필요와 욕구가 채워져야만 누릴 수 있습니다. 반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내 욕망과 자아가 비워지고, 그 자리에 영원한 평안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채워집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참 평안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

씀하셨습니다(마 11:28). 이 말씀은 수고할수록 무거워지는 짐, 곧 욕망의 짐, 죄의 짐, 자책의 짐, 의심과 두려움의 짐, 원망의 짐을 지고 사는 사람들을 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짐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보다 나의 판단과 감정, 상황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평안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짐이 해결되지 않는 한 아무리 상황이 바뀌어도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짐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우주의 창조자이자 통치자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으셨습니다. 그분 곁에만 있으면 우리는 영원히 걱정할 문제가 없습니다. 삶에 대한 태도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가 결정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완벽히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짐을 가지고 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 모든 문제를 풀어놓고 기도하지만, 기도가 끝나면 다시 그 문제를 짊어지고 삶으로 돌아옵니다. 그 짐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십니다. 짐을 내려놓으라고 부르셔놓고는 짐을 지라고 하십니다.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더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것에 중독되어야 하는 것처럼, 더 가볍고 좋은 예수님의 멍에를 지면 자연스럽게 짐을 내려놓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된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신 복음과 그분의 약속 위에서 살기 위한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평강을 누리고, 그 평강의 힘을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기를 축복합니다.

◆ 6월 13일 금요일

고요하고 평온하게

〈시편〉 131편

이재훈 위임목사

〈시편〉 131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의미를 우리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힘이 바로 ‘평강’입니다. 평강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은 죄의 근본이라 할 수 있는 ‘교만’입니다. 자신 안에 있는 교만의 문제를 모르면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교만이 눈을 가려 하나님의 평강을 알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교만을 ‘눈이 높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

습니다(시 101:5, 18:27). 교만이 가져오는 치명적인 문제는 자기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만을 제거하는 게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기 위한 가장 큰 과제입니다. 교만한 영혼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높게 평가받고 있어서 마음이 불편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언제나 스스로 위대해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교만을 극복한 다윗은 “내가 너무 큰일과 벼랑 일을 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1절). 다윗은 큰일을 하려고 나선 적이 없

습니다. 다윗이 양을 치고,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일을 큰 일로 여기고,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일부터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벱찬 일들을 맡기십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그가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이 고통의 세월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다윗 안에 있는 교만을 미리 제거하기 위해서 오랜 세월 고통을 겪게 하신 것입니다. 본문 2절에서 교만을 끊어 낸 영혼이 영원히 평강을 누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젓 떼어 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으로부터 끊어지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때로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물질, 사랑하는 가족, 나의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고통스럽지만 통과하면서 누리는 평강이 있습니다. 두 가지 차원에서 젓을 떼므로 경험하는 평강이 있습니다.

첫째, 엄마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으로 평강을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임재로 인해서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평강이자 예배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교만을 못으로 박지 않으면 우리 영혼의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둘째, 젓을 떼는 관계를 통해서 이제는 다른 양식을 먹고 성숙하는 것입니다. 젓만 먹는 단계의 신앙은 흔들리기 쉽습니다(히 5:12~14). 단단한 음식은 성숙한 사람의 것입니다. 그들은 끊임없는 훈련으로 연단된 분별력을 지니고 있어서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젓 떼어 아이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나의 행복이 되고, 의의 말씀으로 연단된 분별력을 가지고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크리스천의 자녀 양육



장보원 성도
(일산파주공동체,
어린이 일대일제자양
육교육팀장, <소리로
흐르는 육아> 저자)

온라인에 떠도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딸, 아들 낳으면 200점, 아들, 딸 낳으면 100점, 그리고 아들, 아들 낳으면 마이너스 200점이라는 이야기다. 그런데 이 말도 이제 옛말이다. 요즘은 딸, 아들 낳으면 200점, 여기에 셋째가 딸이면 300점이란다. 딸 둘, 아들이면 금메달, 딸, 딸이면 은메달, 딸, 아들이면 동메달, 아들, 아들이면 목메달이라나. 아들 셋인 엄마는 지옥을 면제해 준단다. 지옥에 가도 거기가 지옥인지 모른단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아이 키우기가, 특히 아들 키우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라. 그래도 아들 둘 엄마로서 자신 있게 말한다. 이전 거뭇거뭇한 수염이 나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특유의 호르몬 냄새를 짙짙 풍길지라도 바라만 봐도 예쁘고, 숨만 쉬어도 사랑스러운 아들들이다.

첫째 아이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꼬박 3년 반 동안 틱(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도 모르게 얼굴이나 목, 어깨, 몸통 등의 신체 일부분을 아주 빠르게 반복적으로 움직이거나 이상한 소리를 내는 증상. 전자는 운동 틱(근육 틱), 후자는 음성 틱)으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냈다. 누구보다 편안하고 안정된 정서를 가졌다고 믿었던 아이가 틱 증상을 보이다니.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의아했고, 받아들이기 힘들었고, 인정하기 어려웠다. 아무리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이라 할지라도 우리 가정엔 어려움이 없었는데 웬 틱이란 말인가. 책으로만 보던 틱, 이론으로만 알던 사건, 교실에서만 다루던 현상이 내 아이에게 나타나다니 만감이 교차했다. 코를 찡긋거리는 가벼운 증상을 보였을 때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까에 대해 의문스러웠다. 잠시 증상이 주춤했을 땐 ‘그래도 내가 교사였으니 아이의 행동을 빨리 알아차릴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안도감이 흘렀다. 그러나 아들의 얼굴 전체로 번진 수많은 근육의 불수의적 움직임을 마주하게 되자 그저 안타깝고 측은하기만 했다.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 수료 소감

“엄마, 나 틱이야?”

나는 아들의 틱을 인정하고 면밀한 관찰을 시작했다. 증상의 경중과 움직임의 범위, 증상이 유독 나타나는 상황이나 환경 등을 살폈고, 이 모든 일은 아이가 눈치채지 않도록 비밀스럽고도 예민하게 했다. 아들의 틱은 쉬이 사라지지 않았고, 증상은 더 심해졌으며, 말하기 전 ‘흠, 흠’ 거리는 음성 틱까지 나타났다. 교직 경력 덕분인지 나는 아이의 어려움 앞에 예상외로 침착하고 조심스러우며 예리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었다. 병원 진료는 필요치 않겠다는 단대한 판단도 내렸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많이 안아주고, 먹고 싶은 것을 물어 준비해 주고, 아이의 말에 이전보다 더 귀 기울이며 넓은 부모의 품을 보여주는 것뿐이었다. 나의 이러한 판단과 대처를 남편, 둘째, 친정 부모님, 그리고 아이가 속한 공동체 교사들에게 공유하고 도움을 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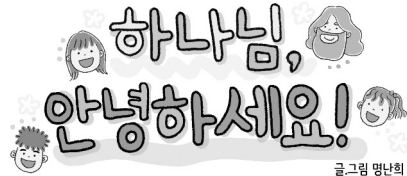
틱 증상 3년째. 아이가 6학년이 되었다. 증상이 가히 꽃을 피웠다. 온 국민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마스크로 자신의 감정과 표정을 숨길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할 정도였다. 그 와중에 아이는 여김없이 학급회장이 되었고, 담임교사와 전화상담을 통해 아이의 틱 증상이 학급 회의처럼 여러 사람 앞에 설 때가 장 심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랬구나, 여러 사람 앞에 서야 하는 부담감이 있었구나’ 생각하며 아이를 이해하게 됐다. 그 무렵 아들은 “엄마, 나 틱이야?”라고 물었다. 틱이 발현되고 꼬박 3년째 아들의 입 밖으로 나온 첫 질문이었다. 그 이후로도 나는 특별한 치료나 조치 없이 이전처럼 많이 안아주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깔깔대고, 태권도 도복을 열심히 빨아주고, 주일설교에 관해 이야기 나누는 등 일상을 함께했다. 그렇게 6학년 가을과 겨울을 지나며 심했던 운동, 음성 틱 증상이 눈에 띄게 감소했고, 드문드문 보이기를 반복하다 드디어 중학교 1학년 여름을 앞두고 3년 반 만에 완전히 사라졌다. 어둡고 길었던 터널이 끝나자 나에게는 그동안 여유로운 척 애써 눌러 놓았던 두려움이 용수철처럼 튀어나오듯 알 수 없는 억울함과 분함, 그리고 해방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아들의 틱에 대한 불안이 사그라질 무렵 하나님은 사십여 년 내 인생 중에서 몇 장면을

스치듯 보여주셨다. 발가락부터 머리끝까지 저릿하게 느껴지는 감각적인 장면들이었다. 나는 매사 일을 처리할 때 목표와 의도를 파악해 몇 주 전부터 계획, 준비, 연습을 거쳐 최대한 실수 없이 하고, 일이 끝난 뒤에는 스스로 부족함과 잘못을 평가하며 곱씹는 편이다. 이런 내 모습을 정확하고,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여겼다. 그런데 최근에서야 내가 불안이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밝고, 명랑하며, 책임감이 강하다는 평가를 자주 들었지만, 치밀한 계획과 실행 이면에 알아차리지 못한 높은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다.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고, 인정욕구에 목마르며,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려 발버둥 치는 나의 원초적 모습을 어린 시절 장면들을 통해 보게 하셨다.

틱 증상이 나타날 만큼 거대해진 아들의 불안의 근원지가 어디였을까? 어디서부터 흘러온 부정적 감정이었을까? 단순히 어느 하나의 요인으로 발현된 증상이 아니었겠지만, 나와 아들은 열 달 동안 한 몸으로 지낸 부모 자녀라는 특별한 관계로 해석했더니 한동안 여러 감정이 내 생각을 멈추게 했다. 나도 모르는 사이 첫 아이 양육에 대한 무게와 책임감을 아이에게도 짊어지게 한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되었다. 중요한 일을 앞두면 식사를 잘 못하실 정도로 걱정하고 염려하시는 친정어머니, 스트레스에 취약한 알레르기를 30년 동안 앓고 있는 나, 그리고 여러 사람 앞에 설 때 의도와 상관없이 움직이는 근육으로 고생한 아들. 어쩌면 내 안의 불안을 알아차리기 위해 소중한 아들의 터널 같은 시간을 값으로 지불했는지도 모르겠다.

하나님은 관계 맺기 위해 사람을 지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고, 사람은 하나님을 닮고 싶어 하며, 그분의 성품대로 소통할 때 가장 편안하고 안전감을 느낀다.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이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 흘러갔듯이, 부모인 나의 어떠한(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영적)이 내 아이에게 가감 없이 흘러감을 언제나 기억해야 한다. 당신은 자녀에게 무엇을 흘려보내고 있는가? 육아가 두려운 이유는 내 아이를 통해 나의 민낯을 직면하기 때문 아닐까?



90. 도긴개긴



성경 QUIZ

〈예수님이 좋아요〉 6월 15~16일자 본문 ‘〈시편〉 74편 12~22절’, ‘〈시편〉 75편 2~10절’

1.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무엇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했나요? 모두 골라 보세요.
① 적들이 주를 욕한 것
② 여름과 겨울을 만드신 이유
③ 어리석은 사람들이 주를 모독한 것
④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의 사정
2.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셨나요?
① 무섭게 화내시며 ② 시간을 정해 바르게
③ 제비를 뽑아서 ④ 백성들의 말을 들어보고

3. 하나님은 악인의 뿔과 의인의 뿔을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나요? 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골라보세요.
① 불 태우신다 / 기쁨을 바르신다
② 꺾으신다 / 높이 드신다
③ 뽑으신다 / 다듬으신다
④ 자르신다 / 불이신다

* 정답과 함께 ‘이름, 공동체, 연락처’를 이메일(hha0@onnuri.org)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차세대 우선 선정).
* 1542호 정답자: 조예준 학생(대전온누리교회), 남동명 학생(인천온누리교회)

제가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을 시작한 이유는 엄마가 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작한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 귀찮고, 따분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4주차가 되었는데 엄마 말씀이 조금씩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물으셨습니다.

“영훈이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 내일 예수님이 오시면 천국갈 수 있다고 생각해?”
그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전에는 이런

질문을 받으면 생각해 보지도 않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엄마의 질문을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전에는 말로만 있다고 했지 실제로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을 통해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말씀을 더욱 귀담아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을 마치

게 되었습니다. 조금 아쉬운 마음도 있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기쁜 마음도 듭니다.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 덕분에 제 삶이 예수님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훈 학생
(서빙고 소년1부)

복음은 언어를 타고 흐른다!

‘성경번역선교회’의 역사와 사역 그리고 비전

‘성경번역선교회’에서 아주 귀한 글을 보내왔다. 성경 번역의 역사가 곧 복음화의 역사임을 알려주는 글이다. 이희영 선교사의 글을 읽으면서 성경 번역 사역을 통해서 열방의 복음화를 꿈꾸는 성경번역선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동역했으면 좋겠다.

/ 편집자주



이희영 선교사
(성경번역선교회)

한글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번역된 소중한 유산이다. 한국은 선교사들이 입국하기도 전에 이미 북쪽과 남쪽에 서부터 성경 번역이 시작된 세계 선교 역사에서 매우 이례적인 나라다.

1868년,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만주에 도착한 존 메킨타이어와 존 로스 선교사가 만주를 오가던 조선인 상인들을 만났다. 그들은 개방적 이었고, 높은 교육 수준을 갖춘 의주 상인들이었다. 선교사들은 그들을 통해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해 알게 된다.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존 로스 선교사는 이응찬으로부터 조선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이후 그는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인으로 기록된 백흥준, 열병을 치유받고 세례받은 홍삼장사 서상룡 등과 함께 한글 성경 번역에 착수했다. 그렇게 1887년 한글로 번역된 최초의 신약성경인 <예수성경 전서>가 출판되었다.

천주교 순교자 가문 출신이며, 궁정 역사 정리가로 활동했던 이수정은 1882년 임오군란 당시 명성황후를 구출한 공로를 인정받아 고종의 배려로 일본 유학을 떠나게 됐다. 그곳에서 농학자 츠다센을 만나 한문 신약성경을 읽고 회심했다. 이후 그는 한문 요리문답서를 번역하고, 동경 유학생들을 위한 한인교회를 설립했다. 당시 미국성서공회 루이스 총무의 제안으로 이수정은 한문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기 시작했고, <현도한한신약성경>(吐漢韓 新約聖書, 1884)과 <신약마가전복음서언해>(1885)를 출간했다.

이수정의 이야기가 <The Missionary Review>(1884년 3월호)에 실렸고, 이 편지는 미북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에게 조선으로 오게 된 계기가 되었다. 1885년, 이수정은 요코하마에 도착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에게 한국어를 가르쳤다. 그들에게 전달된 한글 <마가복음>은 조선에 정착한 선교사들이 새로운 신약성경을 번역하는 기초가 되었다. 이수정 덕분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조선 땅에 한글 <마가복음>을 가지고 올 수 있었다.

이처럼 조선의 북쪽과 남쪽에서 조선인과 선교사가 함께 시작한 한글 성경 번역이 조선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다. 교회의 토대가 되었으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복음에 눈을 뜨게 했다. 선교사보다 먼저 조선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모국어로
들어보지 못한 이들에게
성경을 번역해서 전하는 사역에
많은 관심을 가지기를 소망한다.”

땅에 들어온 한글 성경이 우리 민족 복음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가장 훌륭한 선교사는 ‘모국어로 쓰인 성경’

미국의 카메룬 타운젠드 선교사는 1917년 남미 과테말라에서 스페인어 성경을 보급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다. 어느 날 그가 각치켈(Cakchiquel) 인디언을 만났는데, 그 인디언이 “당신의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시다면 왜 우리 말로는 말씀하지 않는 것이냐”고 질문했다. 그 말에 충격을 받은 카메룬 타운젠드는 그날부터 각치켈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1929년에 이르러 각치켈 인디언을 위한 각치켈어 신약성경 번역을 완성했다. 이후 그는 모국어로 된 성경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확신했다. 그와 뜻을 같이한 동료들과 함께 1934년 언어훈련학교인 ‘캠프 위클리프’를 설립했다. 종교개혁 당시 영어로 성경을 번역한 존 위클리프의 이름에서 따왔다. 카메룬 타운젠드는 “가장 훌륭한 선교사는 모국어로 쓰인 성경”이라고 말했다.

성경번역선교회(GBT, Global Bible Translators)는 카메룬 타운젠드가 시작하고, 이후 이름을 바꾼 위클리프 국제 연대(Wycliffe Global Allian)에 소속된 선교단체다. 1984년 9월 한국 교회 역시 성경 번역 선교에 동참해야 한다는 뜻을 같이한 옥한흠, 이태웅, 하용조, 홍정길 목사 등이 남서울교회에서 성경번역선교회(GBT) 첫 준비모임을 가졌다. 그리고 그해 11월 서울 팔레스 호텔에서 성경번역선교회

(GBT)가 출범했다. 당시 새로 시작되는 단체의 이름을 WBT(World Bible Translators)로 하려고 했는데, 약자가 WBT(Wycliffe Bible Translator)와 중복돼 다른 이름을 찾던 중 이태웅 목사가 ‘World’라는 단어 대신 ‘Global’이라는 단어를 제안하면서 ‘GBT’ (Global Bible Translators)가 탄생했다.

당시 성경번역선교회 창립자들은 특별한 취지와 책임감을 가졌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3천여 종족의 언어 중에서 1/10인 300 종족을 한국 교회가 감당하자는 각오가 바로 그것이었다. 선교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며, 교회와 지역 공동체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결코 빠져서는 안 될 요소가 바로 현지인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모국어로 된 성경’이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복음의 참 의미를 전할 수 없고, 교회 성장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1985년 3월 창립해 올해 창립 40주년을 맞는 성경번역선교회는 현재 선교사 210여 명이 25개 국가에서 87여 종족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있다. 1999년 메케오 신약성경을 시작으로 지난 40년 동안 28권의 성경을 번역했다. 2024년 한 해에만 말레이시아 SEA족 신약성경, 파푸아뉴기니의 메라메라 신약성경, 아우유 신약성경, 우아레 신약성경을 전할 수 있었다. 원주민들에게 모국어 성경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봉헌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다.

말씀 없는 민족을 향한
‘성경번역선교회의 사명’

지난 6월 4일 서빙고온누리교회 비전홀에서 남수단의 딩카 참족 성경전서 출판 감사예배를 드렸다. 딩카 참족의 신약성경은 1940년 이미 번역이 되었지만, 신구약 성경 전체를 갖고 싶어한 현지인들의 바람을 따라 구약 성경의 번역을 시작했다. 하지만 내전으로 인해 성경번역팀이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번역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럼에도 2024년 딩카 참족 성경전서 번역을 완성했다. 그런데 성경을 인쇄하려고 했더니 한 권당 단가가 1만7천 원으로 책정되었다. 이는 GDP(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가 한국의 1/10인 남수단의 경제적인 상황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그래서 남수단 지부에서 위클리프 국제 연대 디아스포라팀의 홍은선 선교사에게 연락해서 성경 출판을 위한 모금을 부탁했다. 6개월 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모금에 어려움을 겪은 홍은선 선교사가 영국 성서공회의 도움을 청해 성경을 인쇄했다. 이어 일본에서 이수정 선교사가 <마가복음>을 번역할 때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성경전서를 출판할 때 미국 성서공회에서 도움을 줬던 것을 떠올리며 한국 교회에도 요청했다. 그렇게 남수단 딩카 참족의 성경전서 출판을 위한 모금이 이루어졌고, 한국 교회가 많은 금액을 헌금해서 마침내 성경전서 출판을 할 수 있었다.

남수단의 딩카 참족처럼, 여전히 모국어로 된 성경을 갖지 못한 채 살아가는 언어그룹이 약 985종족으로 조사되고 있다. 전 세계 언어의 13.3%에 해당하는 2천9백만 명의 사람들이 여전히 성경 한 구절도 모국어로 접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가지고 있는 언어그룹은 전 세계 언어의 23.3%에 불과한 상태다. 성경번역 사역은 결코 성경번역선교회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다.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복음에 빛난 자로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 모양으로 동역할 때 그 빛을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다.

복음은 언어를 타고 흐른다. 조선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 땅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물들고, 한국 교회가 부흥하는 토대는 우리 언어로 된 한글 성경이었다. 이 땅에 한글 성경이 들어오기 전처럼, 여전히 흑암 가운데 살고, 하나님 말씀을 모국어로 들어보지 못한 이들에게 성경을 번역해서 전하는 성경번역 사역에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기를 소망한다.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300종족의 성경번역을 한국 교회가 감당하고자 했던 성경번역선교회 설립 초기의 각오가 성취될 수 있기를 기도한다.

“AI는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가?”

AI의 본질과 한계, 그리고 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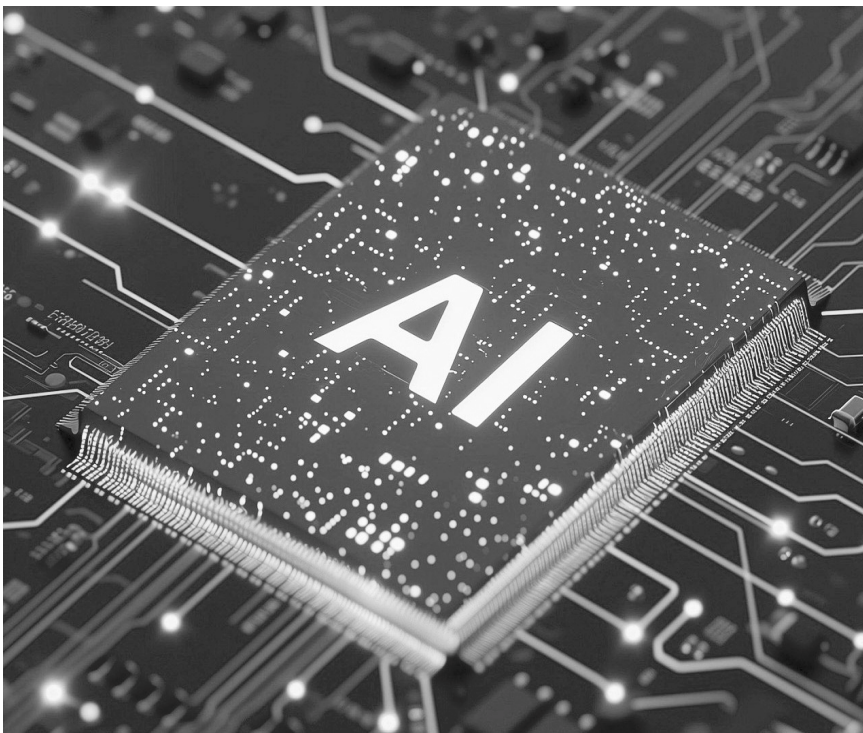
유혁 교수
(강릉공동체,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 교수,
전 연구부총장, 온누리
세계관학교)

인공지능(AI)의 발전은 단순한 기술적 진보를 넘어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글에서는 AI의 작동 원리, 기술적 구조, 그리고 그것이 야기하는 철학적, 윤리적 문제들을 분석하고, AI가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을 정리하고자 한다.

AI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먼저 AI의 정의와 구조부터 살펴보자. AI는 인간의 지능을 모방하는 기계로, 문제 해결, 언어 이해, 이미지 인식, 대화 수행 등이 가능하다. 초창기 AI는 논리 기반 시스템(Rule-based system)이었는데, 지금은 기계 학습(Machine Learning), 딥러닝(Deep Learning)으로 발전했다. 요즘은 딥러닝이 AI의 주류가 되었는데, 딥러닝은 신경망(neural network)을 사용한다. 신경망은 인간의 뇌 구조를 본떠서 만든 것으로, 계층(layer) 구조로 이루어진다. 딥러닝에서 ‘딥’(Deep)이라는 표현은 신경망의 계층 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경망에 데이터를 입력해서 계층 간을 연결하는 매개변수의 값을 조정하고, 계산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것을 ‘학습’(Learning)한다고 한다. 요즘 사용되는 AI 모델(신경망)은 수백억 또는 수천억 개의 매개변수를 갖는다. 따라서 학습 과정에서 매개변수 계산을 수없이 해야 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게 된다.

ChatGPT와 같은 생성형 AI는 LLM(Large Language Model)을 통해 작동한다. 먼저 LLM은 전 세계에 있는 뉴스, 사진, 책 등과 같은 데이터를 학습해서 거대한 지식을 갖는 도서관을 만들게 된다. 그리고 어떤 문장이 주어졌을 때 그 문맥에서 가장 적절한 단어를 확률적으로 예측해서 문장을 생성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Paris is the capital’이라는 문장이 주어졌을 때,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를 예측한다. 예측을 위한 후보 단어들 of, with 등에 대해서 도서관에 있는 지식을 활용해서 확률(적합성)을 계산한다. 그리고 ‘Paris is the capital’ 문장에 대하여 of가 다음에 나올 확률이 가장 높기 때문에 LLM은 그 단어(of)를 만들어 낸다. 다음 동작으로 ‘Paris is the capital of’ 다음에 나올 단어를 반복적으로 예측하면, 우리가 볼 때 LLM이 문장을 만들어 내는(생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날마다 발전하는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AI가 던지는 도전에 대해 기독교 세계관적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기술을 올바르게 활용하면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균형 잡힌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AI의 한계와 오해

AI는 정말 모든 것을 잘할 수 있을까? AI의 강점은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습하고 추론한다는 데 있는데, 바로 그 점이 동시에 한계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인상주의 화풍만 학습한 AI는 추상화가 피카소의 독창적인 표현 방식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재현하기가 어렵다. 이는 AI가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패턴을 학습하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창작이나 맥락의 전환에는 약하다는 뜻이다. 훈련되지 않은 영역, 이를테면 학습 데이터가 입력되지 않은 인도네시아 정글 부족의 언어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의미 없는 출력을 하는 것이다.

또한 생성형 AI와 대화를 해보면, 마치 내 마음에 공감해 주고 감정을 가진 것처럼 답변해서 위로를 받기도 한다. 그래서 요즘 생성형 AI와 상담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AI는 감정을 가진 게 아니라 학습한 내용을 출력하는 것이고, 확률적으로 답변하는 것이다. 즉, 사용자에게 감동을 줄 수는 있지만, 생성형 AI는 감정을 느끼지 않

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생성형 AI의 또 다른 한계점은 어쩌다 한 번씩 ‘그럴듯하지만 잘못된 내용’을 답변한다는 것인데, 이것을 ‘환각’이라고 부른다. 최근에는 이 환각 현상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언제 어떤 맥락에서 환각을 할지 알 수 없는 문제가 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생성형 AI의 내부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기인한다. 더욱이 생성형 AI가 환각을 일으킬 때 생성형 AI는 그것이 잘못된 정보이고, 거짓말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것도 문제점이다. 즉, AI는 자기가 하는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윤리적 판단을 하지 못한다.

AI가 던지는 도전

이와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AI는 분명 놀라운 도구다. 현재 기술 수준으로도 인간이 하는 많은 일을 대체할 수 있다. 실제 국내외 많은 기업에서 AI를 활용해서 인간을 대체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벌써 은행권 대출 심사는 AI가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며, 의료계에서도 AI를 통한 영상 판

독이 이루어지고 있다.

AI가 우리에게 던지는 첫 번째 도전은 세상 모든 지식을 학습했기 때문에 ‘전지적인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대학교 교수로 일하는 필자가 냈던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ChatGPT에게 풀어보게 했다. 채점 결과는 100점 만점에 69점으로, 학생 평균 점수인 51점보다 높았다. 물론 인간 최고점인 82점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AI가 대학 전공 시험을 사람과 비슷한 수준으로 풀 수 있다는 점에서 놀라운 결과였다. 이는 단지 흥미로운 실험에 그치는 게 아니다. AI가 점점 인간의 지적 능력에 근접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다. 이것은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진다. 과연 인간은 무엇이며,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혼란이 생기게 된다.

두 번째 도전은 ‘의인화’다. 특히 젊은 세대에 심각한 도전이다. 실제 많은 청소년이 AI로 학교 숙제를 하고, 대화하고, 개인적인 고민을 털어놓고 있다. 이것은 스마트폰 중독보다 훨씬 심한 AI에 대한 정서적 의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작년 11월, 챗봇과의 정서적 유대에 집착한 한 10대 소년이 챗봇을 사랑한다고 믿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가 있었다. 이 사례는 AI에 대한 인간의 감정적 의존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AI 기업들은 AI 친구, 상담사, 감성 대화 파트너로 포장된 기능을 계속해서 출시하고 있다. 이러한 의인화된 기술은 사람들에게 일시적 위로를 줄 수 있지만, 인간 사이의 실제적 관계를 약화시키고, 정서적 중독과 고립을 심화시킬 수 있다.

세 번째 도전은 AI가 사회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이 상상 이상일 것이라는 점이다. 단지 개인의 대화 상대를 넘어서 AI는 노동, 교육, 경제 구조 등 사회 구조 전반을 재편하고 있다. 화이트컬러 직장뿐 아니라 휴머노이드를 통해 노동을 대체할 수도 있다. 실제 AI 기반 금융, 세무, 법률 서비스에서 고용 구조를 바꾸고 있다. 어쩌면 미래에는 중산층 일자리가 사라지고, 고임금과 저임금의 양극화가 심화할 수 있다.

우리는 날마다 발전하는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AI가 던지는 도전에 대해 기독교 세계관적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기술을 올바르게 활용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균형 잡힌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다음 글에서는 AI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에게 주어진 기독교 세계관적 과제를 살펴보려 한다.

(계속)

맛있는 말씀 해설

“...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합 2:1)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진 국가적 중대사 앞에 국론은 사분오열(四分五裂)되고, 갈등과 증오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조차 기도의 맥을 잡지 못하는 지금,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를 소환해 보자.

하박국이 활동하던 시대는 사회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매우 어둡고 암울한 때였다. 그가 활동하던 시기 유다의 왕은 ‘요시아’였다. 그의 선왕이었던 ‘므낫세’와 ‘아몬’은 온 나라를 우상숭배에 빠뜨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왔던 악한 왕이었다. 아몬이 죽은 이후 겨우 8살에 왕이 된 요시아는 아버지 아몬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라를 통치하려 애썼다. 그러나 죄에 깊이 빠져 있었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일이 쉽지 않았다. 요시아 왕은 므깃도 전투에서 애굽의 ‘바로느고’에게 전사하고 말았다.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 같았다. 요시아 왕 이후 세워진 왕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남유다는 급속히 멸망으로 치달았다. 이뿐만 아니라 북쪽에서 일어난 신흥 강국 바벨론은 앗

수르를 무너뜨리고 세력을 확장해 남유다 왕국의 큰 위협이 되고 있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선지자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했다.

“불의와 파괴, 폭력과 갈등이 계속되는 이 부조리한 세상을 왜 방치하고 계십니까?”

하박국의 질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질문과 다르지 않다. 오늘날 지구촌은 총성이 멈추는 날이 없고, 기근과 난민, 기후 위기와 수많은 재난이 우리의 미래를 불안하게 만든다. 공정과 정의를 외치지만, 여전히 세상은 불공평하고, 누군가의 성공은 누군가의 희생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인권이란 이름으로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고, 가정의 붕괴가 가속하고 있다. 교회 역시 거룩의 능력을 잃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가며, 복음에 냉담한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응답하신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합 2:3,14,20).

사람의 판단으로는 일이 꼬이고 영망이 되

어 가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서 반드시 뜻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반드시 역전의 드라마를 완성하신다. 아직 세상의 결론은 나지 않았다. 여전히 과정 중에 있으며,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완벽한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개인과 사회, 공동체적으로 힘들고 이해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일을 마주하더라도 거룩한 성전에서 영광중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 내 이성과 마음을 혼드는 의구심, 두려움, 염려를 잠재우고 하나님을 주목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눈이 열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시며,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 하나님은 환경을 먼저 변화시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변화시켜 환경을 바꾸어 가신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만 지키고 있으면 그 누구도 우리를 해칠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시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

풍랑 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이 고통스럽게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에게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셨다(막 6:50).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을 이 시대에 다시 새롭게 하셔서 이 시대에 알려지게 하소서.”

이집트 땅에 권능을 드러내셨던 하나님의 능력과 공의가 과거의 사건으로 그치지 않고, 이 시대에 다시 새롭게 드러나게 하길 것이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오늘날 우리에게,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고 알려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소망을 굳게 해야 한다. 하나님만 더욱 붙들어야 하는 때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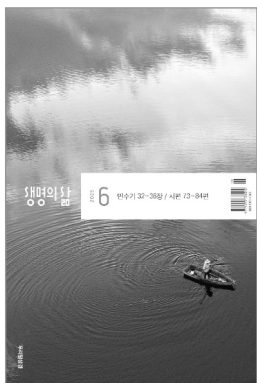


도육환 목사
(영중온누리교회)

〈생명의 삶〉 QT 프리뷰(Preview)

공의의 재판장, 능력의 구원자

6월 16일~6월 22일
〈시편〉 75:1~78:39



묵상포인트 1: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다. 악에 대한 심판이 금방 일어나지 않아 하나님이 방관하고 계신 듯하지만,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은 온 세상을 바르게 심판하실 것이다. 성도는 능력 있는 구원자를 항상 기억해야 한다.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묵상하자.

75편: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의로운 심판을 확신하며 찬양하는 시다. 거만한 자들은 교만하지 말고, 악인은 뿔을 높이 들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은 정한 기억이 이르면 바르게 심판하실 것이다. 재판장이신 하나님만이 사람을 높이기도 낮추기도 하신다. 하나님이 진노의 잔을 악인에게 쏟으실 것이기에 〈시편〉 기자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겠다고 고백한다.

76편: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대적들을 물리쳐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다. 칠십인역 표제에는 ‘앗수르인들에게 대하여’라는 말이

덧붙여 있다. 하나님이 꾸짖으시면 병거와 말도 잠들고, 그분이 온유한(연약한) 성도를 구원하기 위해 심판을 행하시면 땅들도 잠잠해진다. 세상 왕들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마땅히 경외하고, 그분께 예물을 드리며 경배해야 한다.

77편: 절망으로 괴로운 중에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며 지은 시다. 이 시의 배경은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본다. 〈시편〉 기자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과거에는 가까이 계시던 하나님이 이제는 멀리 계신 것 같다. 〈시편〉 기자는 과거 조상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추억한다. 백성을 속량하신 하나님은 천지를 주관하시고, 바다에 길을 내시며, 그분의 백성을 양 떼같이 인도하시는 분이다.

묵상포인트 2: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요, 오늘 우리의 역사다.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조상들이 지은 죄를 반복하게 된다. 〈시편〉 기자가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전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구원 역사에서 이스라엘 조상들이 행한 불순종을 반면교사 삼으며 묵상하자.

78편: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행하신 일들을 회상하며 후대에 교훈을 주기 위해 지은 시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연결한다. 하나님의

법도를 자손 대대로 알려야 함은 그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계명을 지켜 패역한 조상들처럼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외면하고 끊임없이 죄를 범했다. 하나님의 진노로 죽임을 당할 때 그들은 비로소 그분이 구원자이심을 기억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충성되지 못했고, 하나님의 언약에 성실하지 못했으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아시고 진멸하지 않으셨다.

- 적용을 위한 가이드

▶내가 불의하다고 느끼며 분노하는 일이 무엇인가? 공의로우신 재판장에게 그 일을 맡기고 기도하자. ▶하나님은 사람을 낮추기도,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다. 옳지 못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은혜를 구하자.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구원하는 심판자시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약자의 편에 서기를 힘쓰자. ▶하나님에 대한 묵상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변화시킨다. 부정적인 생각과 불신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자. ▶다음세대가 죄 많은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그들에게 바른 신앙관을 물려주기를 힘쓰자.

/ 〈생명의 삶〉 편집부

온우리가 함께 하는 기도

주원이의 회복을 위해!

주원(만 24세)이는 자폐성 발달장애인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일반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중고등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졸업했습니다. 그 이후 장애인 센터를 다니다가 중단하고, 지금까지 대부분 시간을 집에서만 보내고 있습니다.

2022년 8월부터는 거의 외출을 하지 않고, 옷도 입지 않은 채 침대에서만 지내며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때 공동체의 중보기도를 통해 주원이가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현재는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며 과격한 행동이 많이 줄었지만, 웃거나 말을 거의 한마디도 하지 않고, 강박적으로 화장실을 자주 가고 있습니다. 물이나 음식을 거의 섭취하지 않는 날도 있습니다. 주원이가 마음을 열고 가족과 의사소통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전처럼 함께 가정예배를 드리며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대소변도 좌변기에서 하고, 옷도 잘 입고 외출해서 사랑부 예배에 참석하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7월 5일에 주원이 형이 결혼합니다. 형의 결혼식에 함께 가서 식사도 하고, 사진도 찍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원이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평안을 주셔서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 이인수 순장(고양은평공동체)

멘토가 멘티에게

역할이 다를 뿐 가치에는 차이가 없다!

“제 성격이 너무 조용하고 소심해서 공동체에서도 주눅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고백은 매우 진솔하며, 용기 있다. 겉보기에는 소극적으로 보이는 사람이 내면에서는 누구보다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흔히 자신감 넘치고 적극적인 사람을 ‘건강하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조용하고 신중한 성격 역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고유하고 아름다운 성품이다. 문제는 ‘소심함’이라는 성격 그 자체가 아니다. 그 성격으로 인해 자신을 위축된 존재로 느끼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온전히 수용하지 못할 때 발생한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 채 자꾸만 비교하며 움츠러들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아름다운 모습을 잃어버리게 된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시 139:13).

성경은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이 독특하고 세심하게 지으셨다”고 말씀한다. 우리는 우연히 그 성격으로 태어난 존재가 아니다. 조용하고 섬세한 성격 또한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정

교하게 빚어진 모습이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나 성격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며, 그에 따라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시는 분이시다(삼상 16:7).

하나님 안에서 자신감은 세상의 방식과 다르다. 세상은 ‘더 나은 나’, ‘더 당당한 나’를 만들라고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이고,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붙잡는 순간 연합함조차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낸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많은 인물도 처음부터 자신감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모세는 말을 잘하지 못했고(출 4:10), 예레미야는 자신을 ‘아이’라고 표현하며 주저했다(렘 1:6).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약함을 문제 삼지 않으셨다. 오히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통해 그들에게 확신을 주셨다. 그러므로 자신감은 나의 성격이나 능력에 기반을 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

공동체 안에서 자신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수용이 필요하다.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와 성품을 타인과 비교하지 말고 받아들이는 자세다. 어떤 사람은 앞에 나서서 이끌

고, 어떤 사람은 조용한 뒷자리에서 섬긴다. 하나님께는 모든 섬김이 소중하다. 공동체는 다양한 지체들이 모여야 온전해진다. 어떤 역할도 혼자서 공동체를 이룰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각기 다른 모습으로 부르시고, 서로를 통해 배우게 하신다. 조용한 가운데 깊이 공감하고 기도하는 사람, 말없이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존재는 눈에 띄지 않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 작지 않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비유한다(롬 12:4-5). 눈에 띄는 지체도 필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지체 역시 똑같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나를 어떤 자리에 세우셨는지, 내가 맡은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를 묵상할 때 자신감을 얻게 된다. 누군가는 말로 설득하지만, 누군가는 기도로 움직인다. 누군가는 이끄는 손이 되지만, 누군가는 받쳐주는 심장이 된다. 역할이 다를 뿐 가치에는 차이가 없다. 공동체는 비교가 아닌 조화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조용한 성품 안에서도 아름다운 섬김을 빛으신다. 눈에 띄지 않는 기도와 배려가 공동체를 지탱하는 힘이 된다.

결국 자신감은 사람들의 평가나 눈에 띄는 활동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자리와 그 의미를 발견할 때 자란다.

특히 청년의 시기에는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훈련이 중요하다. 이 시기는 자신의 정체성을 탐색하고, 미래를 준비하며, 수많은 비교와 불안 속에서 흔들리기 쉬운 시간이기 때문이다. 이 시기가말로 하나님의 시선 안에 머물며 자신을 다시 세우는 축복의 기회다.

자신감을 얻고자 한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에 머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사람들의 평가와 비교에서 벗어나 창조주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과 그분의 목적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참된 안정감과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다. 우리가 비교에 지치고, 자꾸만 위축되는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다”(사 43:1)라고 조용히 말씀하신다.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을 바로잡고, 그분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할 때 작은 담대함이 피어날 것이다. 진정한 자신감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보다 ‘누가 나와 함께하는가’에 달려 있다!



홍준영 멘토
(강동프라이미스공동체)

이슈(Issue) 바로보기!

기독교적 자본주의 정신

시장경제 기반의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은 기독교적 배경에서 탄생했다.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혁신적인 개념을 소개하고, <국부론>을 집필한 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는 종교개혁으로 일어난 스코틀랜드 장로교가 배출한 신학자이다. 그는 대학에서 도덕철학을 강의하면서 국부론에 앞서 <도덕 감정론>을 출판하며 유명해졌다. 자본주의의 기본 사상인 시장경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성경적 인간에 대한 이해가 우선한다는 게 중요하다.

성경에 기반한 인간에 대한 이해를 살펴보자. 인간은 이기심과 이타심 모두를 가지고 있다. 이기심에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적 이기심’과 모든 사람이 더 많이 갖고 싶어 하는 ‘사익적 이기심’이 있다. 범죄적 이기심에 대해서는 형벌, 감사 등의 제도를 만들어 조직원을 보호하는 장치를 둔다. 사익적 이기심은 계약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추진하는 시장제도를 통해 공익적 요소와 일치시킬 수 있다. 이타심은 문화적인 활동을 통해 확산될 때 그 순수성을 유지한다. 예컨대, 신앙과 봉사를 법률로 정한다면 그 정신은 사라진 채 행위만 하는 연극배우들을 양산하게 됨을 역사를 통해 배웠다. 이타심과 이기심 그리고 범죄적 이기심과 사익적 이기심을 혼동하는 것은 정치와 경제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유럽에서 성경적 인간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자유민주주의 정치시스템과 함께 시장경제 기반의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이 발전했다. 이는 농업 경제시스템으로 인한 빈곤의 시대에서 풍요의 시대로 거대한 전환을 이끌었다. 반면, 무신론을 기반으로 하는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착취구조’라고 비판하면서 프로테스탄트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을 부정했다. 공산주의의 계획경제는 하향 평준화로 더 큰 빈곤의 나락으로 이끌었다.

인간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한 기독교적 자본주의 정신에 대해 아래 세 가지를 살펴보면 좋겠다. 첫째, 우리는 이타심이 아니라 사익적 이기심이 풍요의 시대를 열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지금의 풍요는 시장경제 기반의 분업화 구조에서 참여하는 각 사람이 쏟은 노력의 합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자신의 자리에서 기독교적인 직업윤리를 기반으로 흘리는 땀이 위대한 경제를 만드는 기초이다. 우리는 봉사에 대해서는 과대평가를 하는데, 각자 직업에서 쏟는 최선을 대해서는 과소평가를 하고 있지 않은가? 봉사의 가치를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봉사가 풍요의 시대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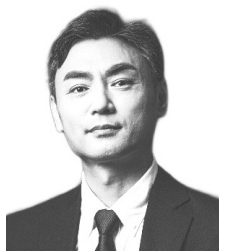
둘째, 독재적인 지도자와 함께 시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CEO에 대한 경계이다. 자본주의

에서는 독재적인 CEO와 함께 시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CEO를 위험한 인물로 본다. 투자자들은 독재적인 CEO를 금방 알아볼 수 있어서 교체할 수 있다. 하지만 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서서히 갇아먹는 이타적인 CEO가 더 큰 문제라는 인식이 있다. 이는 정치에도 적용된다. 개인의 자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국민의 자유를 갇아먹는 선한 것처럼 보이는 무능한 정치 지도자가 독재자 못지않게 위험이 될 수 있다. 우리는 독재와 무능에서 벗어나기 위해 늘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기독교적 독립을 견지해야 한다.

셋째, 프로테스탄트 직업윤리와 함께 기독교적 자본주의 정신은 독점으로부터 보편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학교의 탄생은 문자의 독점을 깨고 대중 지식을 보편화했다. 자유민주주의는 권력의 독점을 깨고 국민주권으로 권력을 보편화했다. 주식회사 제도는 왕족과 귀족의 자본 독점을 깨고 일반 대중이 자본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편화했다. SNS는 정보와 뉴스의 기존 레거시 미디어의 독점을 깨고 모든 대중이 기자가 될 수 있는 시대를 열었다. 독점이 깨어지고 보편화 되면서 일반 대중의 자원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진다. 이는 늘 경제 발전으로 이어졌는데, 집단지성으로 시장에서 새로운 지식이 형성되면서 더욱 효율적으

로 자원이 활용되기 때문이다. 공산주의의 계획경제는 이러한 지식 생산이 어려워져 지식의 빈곤함으로 실패한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미국의 반독점법이 있다. 이는 석유 시장의 스탠다드 오일, 담배 시장의 아메리칸 토바코, 전화시장의 AT&T 등 독점적인 큰 기업을 몇 개의 작은 기업들로 분리하는 근거이다. 이는 정부나 기업이 커지면 권력과 자원의 독점이 가능해져 개인의 자유를 갇아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성경은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를 언급한다. 하나님은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고 말씀한다. 이는 독점적인 지위를 가진 기득권을 위한 정치와 경영과 교육과 목회가 아니라 일반 대중과 서민을 위한 정치와 경영, 교육과 목회를 요구한다. 정치와 경제, 교육과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성경이 요청하는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정신은 자연스럽게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와 선교로 이어진다.



박성진 교수
(OCC공동체, 포스텍교수)

“나는 조선을 사랑한 일본인 선교사입니다”

CGN 기독교 다큐 영화 ‘무명(無名)’ 6월 25일 개봉

CGN 개국 20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기독교 다큐멘터리 영화 ‘무명(無名)’이 6월 25일 전국 롯데시네마에서 단독 개봉한다. 배우 김윤호가 노리마치 마사야스 선교사 역을, 배우 김중희가 오다 나라지 선교사 역을 맡았다. 배우 하정우가 내레이션 했다.

영화 ‘무명(無名)’은 암흑 같았던 일제강점기 고통 가운데 있는 조선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찾아온 이름 없는 선교사들의 이야기다. 일본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로 ‘수원 동신교회’를 설립한 노리마치 마사야스와 일본의 신사참배를 부정한 선교사

오다 나라지의 이야기가 담겼다. 가해국 출신이라는 이유로 배척 받았지만, 조선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두 선교사의 모습이 시대를 넘어선 감동과 깊은 울림을 선사한다. 광복, 분단 80주년, 국교 정상화 60주년, 내한 선교 140주년 되는 뜻깊은 해에 사랑과 용서, 이해와 회복을 노래한다.

영화 ‘무명(無名)’은 2017년 개봉한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에 이은 CGN의 두 번째 기독교 다큐멘터리 영화다.

문의: 02-3275-9303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CGN ‘콘텐츠 기획안 공모전’

6월 22일까지 기획안 접수

CGN이 ‘콘텐츠 기획안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 부문은 ‘CGN TV’와 ‘기독교 OTT ‘풍당’ 및 CGN 유튜브 채널’이다. 두 플랫폼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콘텐츠를 제안하면 된다. CGN TV는 60대 이상 장년층 대상의 TV 포맷, 기독교 OTT ‘풍당’ 및 CGN 유튜브 채널은 2030 청년층 대상의 디지털 포맷이나 네크리스천을 위한 콘텐츠를 추천한다.

CGN 콘텐츠 기획안 공모전은 개

인 또는 4인 이내 팀으로 구성된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6월 22일(일)까지 구글폼(QR 참고)으로 기획안을 접수하면 된다.

1차 서류 심사(6월 30일~7월 3일), 2차 PT 심사(7월 7~10일)를 거쳐 8월 말 최종 당선작을 선정한다. 대상(1팀) 300만 원, 2등(1팀) 100만 원, 3등(2팀) 50만 원을 준다.

문의: 02-796-9800



‘2025 달려라풍당’ 후원금 6월 20일까지 입금

2025 행복한 가정 레이스 ‘달려라풍당’ (이하 2025 달려라풍당) 후원금 입금을 6월 20일(금) 마감한다. 후원금을 아직 입금하지 않은 참가자들은 후원 목표 금액을 CGN 후원계좌(하나은행 573-910010-98304)로 보내면 된다. 후원금을 입금할 때는 반드시 이름과 생년월일을 기재해야 한다(예: 김풍당 210215). 2025 달려라풍당은 지난 5월 10일부터 24일까지 이어졌다. 성도 2600명이 참여해 현재까지 2600여 만 원을 모금했다. 달려라풍당 후원금은 전액 행복한 가정과 건강한 차세대를 위한 기독교 OTT ‘풍당’ 콘텐츠 제작 및 허입에 사용한다. 문의: 02-796-9800

입양·위탁·결연·지원세미나 개최

6월 15일 오후 5시 온누리청소년센터

입양과 가정위탁, 보육원아동 결연과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알리는 ‘입양·위탁·결연·지원세미나’를 개최한다. 6월 15일(일) 오후 5시부터 오후 8시까지 온누리청소년센터 3층 소극장에서 ‘한 아이의 온 세상을 만드는 사랑의 여정’을 주제로 열린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공개입양인이자 입양인 권익활동가 최순영 자매가 강의한다. 김영석 팀장(제이홈사

역팀), 오창화 팀장(울타리사역팀)은 제이홈사역팀과 울타리사역팀 사역 소개를 한다. 우리나라 입양위탁 현황과 조건 및 절차, 한국 보육원 현황과 자립준비청년 실태 및 지원 방법도 알려준다. 제이홈사역과 울타리사역 중에서 관심 있는 사역팀의 QR 코드로 접속해서 신청하면 된다. 문의: 02-3215-3434

/ 홍하영 기자

초등 고학년을 위한 성경적 성교육

6월 23일부터 매주 월요일 온라인

초등 고학년을 위한 성경적 성교육 참가자를 모집한다. 6월 23일(월)부터 7월 14일(월)까지 4주 동안 매주 월요일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초등 고학년을 위한 성경적 성교육 강의는 이진아 전도사(남가주 다음세대 지키기 대표)가 한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경이롭게 만드신 하나님, 현숙한 여자와 믿음의 남자로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이트

를 주제로 강의한다. 수강신청은 두란노바이블칼리지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3만 원. 6월 16일까지 등록하면 회비를 1만 원을 할인해 준다. 교재〈초등생을 위한 성경적 성교육〉은 별도로 구매해야 한다. 성경적 성교육을 통해 성의 올바른 가치를 함께 배우고 싶은 초등 고학년 자녀와 부모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문의: 02-2078-3265

The Way 한일청년연합집회 기·도·제·목

1. 한일청년연합집회 ‘The Way’를 통해 한일 청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도록.
2. 한일 청년들이 교회의 부흥을 이끌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도록.
3. 한일청년연합집회를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충만하도록.



온누리요양센터 개원 19주년 기념식

감사패 전달, 우수직원 표창, 특별 공연 이어져

온누리복지재단 산하시설 ‘온누리요양센터’가 개원 19주년을 맞아 지난 5월 29일(목) 기념식을 개최했다. 온누리요양센터 개원 19주년 기념식은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송석근 목사(양지온누리교회)가 사회를 보고, 박철웅 목사(양지온누리교회)가 말씀을 전했다. 2부에서는 감사패 전달, 우수직원 표창, 입소 어르신들로 구성된 ‘시니

어 싱어즈’의 특별 공연이 이어졌다. 온누리요양센터 김정진 원장은 “19년 동안 온누리요양센터와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환경개선 및 돌봄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콘솔라토르싱어즈와 함께하는 ‘찬양음악회’

7월 5일 오후 2시 30분 서빙고 두란노홀

‘콘솔라토르싱어즈’와 함께하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찬양음악회’가 오는 7월 5일(토) 오후 2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열린다.

온누리복지재단에서 주관하는 이번 찬양음악회에는 국내외 최정상 크리스천 성악가들과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된 ‘온사랑합창단’, 찬양위십팀 ‘아이네오’가 출연한다. 소프

라노 유열자의 우정 출연도 준비되어 있다. 공연 후원금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에 기부한다.

콘솔라토르싱어즈는 음악회 관람이 어려운 병원, 미자립교회,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장애인기관 등지를 찾아가 찬양과 클래식 공연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

입장권 문의: 010-3774-1121

/ 김현준 기자

〈생명의 삶〉정기구독 신청



전도콜센터 02-3215-3377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우측 QR 코드를 찍으면 서빙고와 양재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되는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14기 갈렙선교학교 참가자 모집

7월 6일부터 8월 30일까지

14기 갈렙선교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7월 6일부터 8월 30일까지 영상 강의 시청과 매주 토요일 온라인 조모임이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아이스쿨(ischoolionnuri.org)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3만 원.

갈렙선교학교는 선교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선교적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문의: 010-9930-1398

계좌번호: 하나은행

573-910019-79305

(온누리교회(갈렙선교))

/ 박지혜 기자

생장점이 터지는 신약일독학교 참가자 모집

7월 3일 ~ 9월 18일 매주 목요일

생장점이 터지는 신약일독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7월 3일부터 9월 18일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8시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7월 2일까지 하단 번호로 신청하면 된다. 회비는 5만 원(교재 별도). 백경숙 전문강사가 메시지를 전한다.

생장점이 터지는 신약일독학교는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뜨거운 은혜와 감동을 느끼고 싶은 성도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문의: 010-2579-9589

계좌번호: 하나은행

313-890549-40007

(백경숙)



나는
조선을 사랑하는

일본인 선교사입니다

무명
無名

내레이션 하정우

6월 25일 롯데시네마 단독 개봉

제작 CGN 배급 커넥트픽처스 12세 이상 관람가

세상의 방법과 다른 선교미디어, CGN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에 맞선 다윗처럼, CGN은 '복음', '용서', '사랑'을 들고 세상 한복판으로 들어갑니다. CGN 20주년 특집 다큐영화 <무명(無名)>을 위해 많은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CGN 후원 하나은행 573-910002-67804 (온누리선교재단)

영화 소개

<무명(無名)> 단체 대관 안내

전국 롯데시네마에서 '영화와 함께 드리는 특별한 예배'의 시간을 신청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QR코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관 문의
02-3275-9303~4